

SPACE21 총 사업비용 서울·국제 합쳐 1,750여 억원 책정

SPACE21 공사비용 확보 논란

박기윤 기자 kyoan@khu.ac.kr

SPACE21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이 예고된 가운데 공사비 마련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학본부 측은 양 캠퍼스 SPACE21 사업비 약 1,750억 원에 대해 경희학원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총 사업비 1,750억 원 중 약 800억 원은 서울캠퍼스(서울캠), 약 950억 원은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중 국제캠 종합체육관 건설비용 약 225억 원은 이미 확보·투입한 상태다. 이밖의 사업비는 기금과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통해 얻은 기획보 재원 94억 외에, 기채 신청을 통해 500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 운영수익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500억 원 기채는 대출 3년 후부터

17년간 상환 예정

기채의 경우 대출 시점 3년 후부터 17년에 걸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는다는 계획이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영원 김상만 원장은 "실제로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30억 원 초중반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학교로 들어오는 비목적기부금을 활용하거나 대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금 또는 수익 사업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면에서 이어짐

SPACE21 사업단은 공사일정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대책을 세운 상태다.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주말이나 야간에 진행하고, 관련 공지 역시 사전에 실시할 계획이다.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밤과 시 방호마트 사용과 소음자동 측정망 설치를 통해 소음 역시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사 시 발생하는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차량 차속 제한(20km/h 이내), 세륜 세차시설, 주기적 살수 및 풍속계, 방진망 설치 등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실제로 장기간의 공사인 만큼 학기가 시작될 경우 등교하는 인원이 많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와, 점심시간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서울캠 종학과 대학본부, SPACE21 사업의 두 가지 쟁점

기채규모

총학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책 없다"

VS

대학본부

"비목적 기금과 재정사업을 통해 공사 비용은 충분히 충당 가능"

구성원과의 소통부재

총학

"등심위를 '서면회의'로 진행하자는 것은 학생을 기만하는 것"

VS

대학본부

"등심위 위원들의 의견 물어본 것 일뿐 강제로 진행할 생각 없어"

하지만 서울캠 종학생회(총학)는 학교의 자금마련 계획이 '불충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난달 28일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난 4일에는 청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평의원회의에서 SPACE21공사를 위한 500억 대출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단 두 장의 예산계획서만 볼 수 있었다"며 "그저 믿으라는 대학본부의 요구에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학 본부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난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본부와 서울캠 종학 사이 쟁점은 2가지다.

먼저 '기채규모'에 대한 문제다. 종학은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학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재정경영원 면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계약 이전이기에 전체적으로

로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불확실한 부분이라도 구성원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본부,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최대한 막는 등 최선을 다할 것

학교 측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영원 김 원장은 "핵심적인 재정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이전으로 자세한 액수나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어 아쉽지만 종학이 걱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며 "비 목적 기부금과 재정사업을 통해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사업의 경우 우리신문의 취재결과 시설 운용수익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최대 수익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개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학측의 설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채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기채를 빌리는 것 또한 절대 예산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대학 전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서 발생할 다양한 재정 수요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 모두를 건설 사업에 투입할 수는 없다"며 SPACE21 사업은 물론 발생되는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 수요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채의 성격을 설명했다.

즉, 현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학, 연구 등 목적성 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채의 규모는 확연하게 줄일 수 있지만 SPACE21 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 수요가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로 기채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또한 "기채의 사용방식도 한번에 목돈을 받아 500억 전체에 대한 이자 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의 형식을 취해 불필요한 이자의 발생을 최대한 막는 등 대학 본부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쟁점 두 번째는 관련 대책에 대한 구성원과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지난 4일 종학이 진행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역시 이런 절차에 대한 비판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사립학교법 28조와 사립학교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학교가 기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등심위 개최통지가 지난 2일 종학과 재정경영원장과의 면담 중에 이뤄졌고, 등심위 진행방식 자체도 서면으로 하자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종학 측은 "재정경영원장과의 면담 도중 등심위가 3일 뒤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심지어 실제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등심위를 진행한다는 통보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등심위 담당부서인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등심위 '서면 회의' 제안은 단지 등심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 강제로 진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한명이라도 반대가 나올 시에는 대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학, "현실성 떨어지고, 학생과 충분한 논의 없었다"

재정경영원 김 원장 역시 "지난 2011년 기체신청을 논의하며 당시 종학과 합의가 끝났지만 현재 상황이 변화된 점을 충분한 수준에서 고려하지 못했다"며 "학생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으로 앞으로 오해 없도록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등심위는 연기된 상태로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항후 등심위를 진행해도 종학이 '확실한' 재정마련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착공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학의 설득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1시 30분은 공사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공사진입로(교시탑 부문)에 안전요원 1명이 상시 배치되고, 건설 자재 운반시에는 4명의 안전요원을 배

치해 보행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운동장이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부족해지는 주차공간은 소라관이 철거된 후

설치될 임시주차장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운동장은 평균 240여 대를 수용해 왔지만 새로 설치될 임시주차장은 85대만 수용할 수 있어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종무팀 관계자는 "부족한 주차공간은 푸른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5부제를 시스템화 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노천극장 소라관 공간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난 후 글로벌 타워가 들어서고, 노천극장 부지는 잔디광장으로 바뀐다.

한편 본격적인 서울캠 SPACE21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캠퍼스(국제캠) SPACE21 공사의 진행상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제캠의 경우, 구성원 간 논의

과정이 일찍 끝난 종합체육관 신축사업이 6월 4일 기준으로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단 측은 "올해 말까지 옥상 총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후 공정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대학 교수연구동의 경우 외국어 대 구성원의 건물 위치 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도면작업이 끝나 스페어스21 사업 대표건축가 이현호(홍익대 실내건축학)교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학관의 경우 지난 둘 구조물 삭제를 바탕으로 한 절충안이 나온 후 4층 연면적 7,000평에서 5층 7,200평으로 규모가 소폭 커졌다. 이후 내부설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재 두 건물은 최종설계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후 건축 인허가 과정까지 고려할 때 연내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iveNgive 기쁜기부 캠페인



경희 기부천사파트너즈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경희 라이언 서포터즈클럽

매그놀리아 스토리

후원의 집

give@khu.ac.kr

[givekhu](#)

[givekhu](#)

[givekhu](#)

02-961-0932 031-201-3190

The World is
a Global Village and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One Human Family.
May We Strive for
Peace and Humanity
with the Spirit of
Global Cooperation
Society.



give.khu.ac.kr